

2023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정기총회 회의록

- 일 시 : 2023. 2. 25.(토) 11:00~12:30
- 장 소 :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실 & 온라인(Zoom)
- 참석자
 - 현 장 : 김재훈, 김혜미, 박석란, 박종미, 신철민, 안효성, 이명목, 이상희, 이행민, 임명연, 전재일, 함형호 (총 12명)
 - 온라인 : 권구일, 김영석, 신용우, 윤선희, 이정미, 장은미, 정아영, 지선주 (총 8명)
 - ▶총 참석인원 : 현장 12명, 줌 8명, 위임 51명 ▶총 71명
- 촬영지원 : 조병성

- 의장 : 이명목 대표
- 보고 : 김재훈 사무국장
- 기록 : 이상희 운영위원

1. 개회인사

- 김재훈 사무국장의 개회인사로 시작함.

2. 성원보고

- 김재훈 사무국장이 위임 51명, 현장 11명, 온라인 6명으로 총 68명이 총회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개회 후 현장 1명, 온라인 2명으로 총 3명이 추가 참석함)

3. 개회선언

- 성원 보고 후 이명목 대표가 2023년 세빛사 총회 개회를 선언함.

4. 대표인사와 참석자 인사

5. 전차회의록 확인

- 김재훈 사무국장이 전차회의록을 보고함.
- 신철민 회원 동의, 김혜미·이정미·지선주 회원 재청 후 참석자 동의를 거쳐 전차회의록을 승인함.

6. 보고안건(1) 2022년 사업보고

- 김재훈 사무국장이 총회자료집 7~16쪽을 참고하여 2022년 사업 및 연대활동을 보고함.
- 별도의 질의응답이 없어 사업보고를 마무리함.

7. 보고안건(2) 2022년 결산

- 김재훈 사무국장이 총회자료집 17~20쪽을 참고하여 2022년 결산을 보고함.
- 2022년 결산 기준 81,383,340원으로 추경 대비 79% 집행률을 확인함.
- 인건비 관련, 신규간사채용 과정에서 반상근 근무와 연내 퇴직으로 인건비 지출이 축소됨.
- 다이어리 사업이 2022년에 집행되지 않아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발생함.
- 별도의 질의응답이 없어 결산보고를 마무리함.

8. 보고안건(3) 감사보고

- 변은경 감사와 이준우 감사를 대신하여 김재훈 사무국장이 총회자료집 21~23쪽의 감사보고서를 대독함.
- 이명목 대표가 감사 진행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주신 두 분의 감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함.

9. 심의안건(1) 2023 사업계획(안)

- 김재훈 사무국장이 총회자료집 24~27쪽의 2023년 사업계획(안)을 보고함.
 - 2023년 세빛사 11주년이 되었지만, 현재 상근간사 부재로 세빛사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세빛사 운영비 모금캠페인과 회원 참여 확대를 통해 올해 상근자를 2명 채용하여 사무국을 정상화하고, 사회복지사 회원과 함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자 함.
- 김혜미 회원 질문 : 연대활동 중 두 가지에 관한 질문과 수정의견이 있음. 첫째, 줬다 뺐는 기초연금 의제와 함께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일하는시민연금개혁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음. 기초연금 논의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 개혁 부분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데, 어떤 준비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함.
둘째, 자료집 내 주거권 연대 명칭을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정확한 이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명목 대표 답변 : 연금 개혁 부분은 세빛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보겠음.
제안 주신대로 주거권 연대 부분을 '집걱정없는세상연대'로 명칭을 수정하여 정정하겠음.
- 김재훈 사무국장 답변 : 현재 줬다뺐는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을 근로소득공제율 30%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로소득공제율만큼의 공제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 개혁 접점을 모색하겠음.
- 윤선희 회원 의견 : 사업보고를 잘 들었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함.
- 지선주 회원 의견 :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단체이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참여가 낮은 상황이 아쉬움. 111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함. 하지만 상근자 2인 채용을 위한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이 좀 더 구체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명목 대표 답변 : 세빛사 현재 회원이 350명인데, 향후 회원 1,000명이 되면 2명의 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음. 그래서 올해 회원 배가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권구일 회원 의견 : 상근자 채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상근자를 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회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하겠음.
- 지선주 회원 동의, 전재일 회원 재청 후 다수 회원의 동의를 거쳐 2023년 사업계획을 승인함.

10. 심의안건(2) 2023 예산(안)

- 김재훈 사무국장이 총회자료집 28~31쪽의 2023년 예산(안)을 보고함.
 - 2023년 예산(안) 103,600,000원 상정함.
 - 현재 세입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계획과 달리 현재 예산(안)은 상근간사 1명의 인건비만으로 편성함. 회원배가운동과 회비증액캠페인을 통해 추경으로 반영할 계획임.
 - 올해 회원배가운동과 연동하여 다이어리제작·판매로 2,000만 원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음. 2024년 다이어리 제작과 홍보에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함.
- 김혜미 회원 질문 : 두 가지 질문이 있음. 첫째, 예산안에 다이어리를 지출로 잡고, 사업계획에는 다이어리 사업을 명시하지 않았는지 궁금함. 둘째, 사업계획에 상근자 2인 채용을 명시하였으나,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불일치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
- 이명목 대표 답변 : 두 명의 간사 채용은 희망 사항으로, 올해 바로 회원이 1,000명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지 못한 결과의 반영임.
- 이정미 회원 질문 : 첫째, 간사 퇴직적립금 계상액이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다이어리 제작으로 인한 순수익금이 500만 원인가?
- 이명목 대표 답변 : 다이어리 제작비가 1,500만 원, 판매비 2,000만 원으로 다이어리 판매수익은 500만 원이 맞음. 수익이 아닌 수입으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임. 다이어리 판매수익은 500만 원은 최대치라기보다는 최소규모임. 순수익 500만 원~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인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다이어리는 수익을 내는 것 이상으로 회원의 공감대 형성과 비회원인 사회복지사에게 세뱃사의 정체성과 활동 내용을 잘 알릴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임.
- 임명연 운영위원 답변 : 퇴직적립금이 인건비 지출보다 과소계상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음. 이정민 전 간사의 상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환수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2023년분에 반영됨에 따라 2023년도 퇴직적립금의 계상액에 포함됨. 이에 계산된 급여보다 퇴직적립금이 적게 잡힘.
- 이정미 회원 의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다이어리를 제작하기 전, 세뱃사에서 다이어리 수요조사와 신청을 받으면 판매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명목 대표 : 회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을 전제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동의와 제청을 요청함.
- 지선주 회원 동의, 이정미 회원 재청. 다수 회원의 동의로 2023년 예산이 승인됨.

11. 심의안건(3) 신규 운영위원 선출의 건

- 김재중, 신용우, 류성원, 이상희 운영위원은 오늘까지 활동 후 퇴임 예정.
- 세뱃사 운영위원은 월 1회 회의(연 12~15번 회의 참석 필수), 사무국 업무 지원, 기자회견 등 참석하고 있음. 운영위원 중 가정사, 직장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 상황변동에 따라 운영위원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이후에 운영위원으로 복귀하여 활동하기도 함.

○ 신규 운영위원 추천 : 이정미, 이행민, 김혜미

- 세 명 신규 운영위원에 대해 다수 회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향후 2년간의 운영위원으로 승인됨.

○ 퇴임운영위원 : 김재중, 류성원, 신용우, 이상희, 홍영숙

- 신용우 : 출산 등으로 운영위원 활동을 하지 못했음. 2023년에는 활동회원으로 함께 하겠음.
- 이상희 : 이사와 구직으로 인해 중단. 좋은 사회복지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음.

○ 신임운영위원 인사

- 이정미 : 세월호 홍대 행사 이후에 세밋사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음. 이제 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이 주어졌으니 앞으로 열심히 하겠음.
- 이형민 : 5년 전에 세밋사를 알게 되었으나, 작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음. 올해부터 운영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음.
- 김혜미 : 전 간사로서 현재 사무국 공백의 책임이 있어 마음이 무거움. 조금 다른 역할로 세밋사에서 배웠던 것을 운영위원으로 열심히 하겠음.

12. 기타안건

- 이명목 : 세밋사 활동 및 복지국가 활동에 대한 의견과 제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
불편한 질문은 더욱 환영하니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회원님들부터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바람.
- 권구일 : 구미에서 사회복지사 대상 보수교육 후 세밋사 가치에 동의하여 가입하였으니, 회원이 된 지 오래된 것 같음. 현장 사회복지사에게 세밋사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아 세밋사를 알리는 데 힘쓰면 좋겠음. 오늘 총회에 참석하여 세밋사 상황을 들으니 힘든 상황인 듯싶는데, 내·외부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윤선희 :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으나, 마음만이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선주 : 세밋사 가입한지 몇 년 되었으나, 한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 다른 영역에 관한 관심이 낮았던 것 같음. 가입 계기가 다양한 활동에 관한 관심과 연대를 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활동을 많이 못해서 아쉽고 죄송함. 어린이병원비, 주거권, 기초노인연금 등 사회복지 의제가 확장되는 주제에 대해 세밋사 회원들이 응집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음. 그런 계기, 방법을 논의하고 참여하겠음.
- 이정미 : 사무국 위기라고 하지만, 300여 명의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오늘 총회에서 제안해주신 111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 아직 현장에 세밋사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음.
- 안효성 : 오늘 처음 총회에 참가하였는데 뜻깊은 시간이었음. 시간이 되면 오프라인 모임 등에 참여하며, 회원들과 알아가는 시간 가지겠음.
- 이형민 : 작년에는 활동을 많이 못 했는데,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결심한 것이 새로운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스스로의 의지와 약속인 것 같음. 앞으로 많이 배우며 함께하겠음.
- 김혜미 : 작년 하반기에 간사 사직 후 활동하지 못해 서운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운영위원으로 추천, 선출해주셔서 세밋사 활동을 다음 단계로 할 수 있을 것 같음.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세밋사를 응원하고, 관심 갖고 함께해주시길 바람.
- 김재훈 : 다이어리 이야기를 하고 싶음. 많은 에너지가 들고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재고도 있어 올해 다이어리 사업을 고민하였는데, 막바지에 그래도 해보라며 예산에 반영함. 이는 의지를 다지고 다이어리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소망과 바람임. 오랫동안 세밋사를 지지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많은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 신철민 : 신입 운영위원분들이 오셔서 힘이 되고 기대가 큼. 작은 반복의 힘이 성공을 위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함. 지난 10년간의 촛불의 힘, 사회복지사들의 느슨한 연대로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고 봄. 운영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음. 감사드립니다.
- 전재일 : 세밋사가 올해 11년이 됨. 개인적으로 축구선수 중 11번 선수 좋아함. 11번은 가장 빠르게 달리는 선수이며, 1이 두 번 들어가는 것도 기분 좋음. 세밋사 11년이 기분 좋은 한 해가 되면 좋겠음. 작년엔 주거권 행진, 기후위기 행진 등에 참여하며,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음. 올해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가을에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참여하고 목소리를 모으면 좋겠음. 현장에서 자주 보길 바람.

- 함형호 : 100번째 복지국가촛불 후 회원으로 가입한 새내기 회원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음. 한가지 건의 사항은 정기총회는 큰 활동이니 자료집을 미리 단톡방과 홈페이지에 올려 사전에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면 좋겠음.
 - 박석란 : 회원으로 가입한지 오래되었으나, 참여를 많이 하지 못했음. 열심히 참여하고 촛불도 나오겠음. 111캠페인도 동참하겠음.
 - 이상희 : 주거, 건강 의제를 각자의 사회복지 현장과 세뱃사 활동을 연결하는 기획으로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확장되길 기대함.
 - 임명연 : 오늘 총회를 함께하며 서로 약간은 어색한 현장 분위기를 느낌. 111프로젝트와 함께 회원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세뱃사 회원들이 서로 친해지고,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즐겁게 열심히 참여하겠음.
 - 박종미 : 운영위원이 된 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올해는 다시 새롭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겠음. 세뱃사를 통해 많이 배워가고 있음. 배움이 어디에서든 함께하길,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한국 사회복지계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음.
 - 장은미 : 올해는 오프라인 모임에 1회라도 참여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앞에서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이명목 : 귀한 말씀들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왜 세뱃사가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에 20만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음. 복지관 문을 나서면 폐지 줍는 노인, 기차역의 노숙인, 학업 시간에 골목에서 있는 청소년들, 지원받지 못하는 미혼모, 자살을 하는 사람들, 많은 비정규직,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복지관을 벗어나면 어렵지 않게 이런 사각지대를 만나게 됨. 이들의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해결하자고 나서야 할 것인가? 사회복지사가 그 처음이 되어야 함.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일차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함. 그것이 우리가 세뱃사를 시작한 이유임.
- 대한민국은 G10에 들어가는 경제강대국이 되었으나, 인권, 복지, 환경을 지키는 강대국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함. 이는 20만, 100만 사회복지사가 힘을 모으면 가능함. 우리가 최일선에서 세뱃사의 갈 길을 열어나가면 가능함. 세뱃사 350명 회원이 동참하고, 이후 동료, 선후배에게 권해주시어 회원 확대로 사회복지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
- 집 걱정 없고, 병원비 걱정 없고, 청소년이 행복하고, 노인이 빈곤을 걱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 세뱃사가 힘들어도 놓지 않고 가는 이유임. 그건 오로지 회원님들의 참여 덕분임. 오늘 총회에서 111 운동에 적극 동의 해주셨기에 여러분과 함께 복지국가를 열어가겠음.

13. 공지사항과 폐회선언

- 김재훈 사무국장의 폐회를 선언함.